

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

공지영 글
정영아 곡

어어 나 렸을지 적적 때 에에 어 난난 나 무분 - 슬홍 - 꿈빛세 을꿈상 꾸꾸을 었었보 나네네

나 나 혼 어 지 들 편금 립 사 살 없 랑 며 는 가 꿈 뚜 습 은 명 에 지 한 품 위 눈 어 저 빛 왔 가 으 나 고 로 아 모 자 무 두 유

도 가 는 내 내 내 계 계 계 가 르 감 냥 처 당 기 주 하 다 지 라 리 알 말 지 았 하 았 네 네 네

여 기 - 딛 고 선 나 의 하 처 살 내 림 끝 내

가 꿈 은 걸 음 멈 추 고 하 늘 을 보 면

세 월 에 텅 빈 가 습 나 이 제

그 대 와 진 정 함 께 일 때 까 지

나 흘 로 걷 고 싶 어 라

가 습 에 살 아 습 쉬 는 -

D.S.